

거주공간의 '창의적 토착화'에 관한 연구

- 하이데거의 "거주함" 사유를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Creative Inculturation of Dwelling Space

- Based on the Thought of Heidegger's "Dwelling -

이승현* / Lee, Seung-H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draws out a theoretical frame for dwelling space from Heidegger's thought, "Dwelling" and analyze Luis Baraggan's housing design as an instance of the practical expression of them. The 'creative inculturation' of dwelling space is possible through familiarity by disclosing in time and place.

Heidegger suggests that place as existential space represents the occasion revelation of incidents in Dasein. He interprets the dwelling as creative openness in which elements comprising this world fac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to one. Openness may be referred to a dynamic coordination in which the each and the world sustain each other under incessant mutual tension, but not sticking each other. Creative incultura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how deeper conversation was made internally. To complete the process properly requires determining several relationships involved in the land area.

키워드 : 거주공간, 토착화, 창의적, 하이데거, 거주함, 사유, 루이스 바라간, 주택, 근접화, 현재화, 친숙함

1. 서론

생명의 근원은 유기적 활동에 있다. 옛것과 새것, 내부와 외부, 부분과 전체가 충돌하여 자극이 발생할 때, 생명은 더욱 활성화된다. 수용과 변화를 거부하고서는 생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본성을 지켜 고착적(固着的) 안주만을 추구할 때는 내부로부터의 부패가 시작되지만, 반대로 본성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타자와의 교분을 이어가는 곳에서는 생명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타자가 본성을 잠식하는 것 역시 생명의 원리일 수 없다. 일순간 충격적인 자극에 의한 전회(轉回)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식(移植)으로 생명력이 길지 못하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게 현재를 사는 길은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여 씩 없이 수용과 자기화의 반복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이같은 유기적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거주하는 공간 역시 유기적 과정의 반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독립된 장소에 건립되는 거주공간은 그 장소가 가진 오랜 전승과 환경적 특성을 존중하며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승된 형태만

을 답습하거나 환경적 변화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땅에 적합한 창의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거주공간은 기능성과 경제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유리된 획일적 형태를 양산하였으며, 그 결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마저 획일화를 조장하였다. 이같은 결과의 초래는 인간의 '거주함'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가 부재하였던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거주함'이 건립 행위 이후의 문화적 사건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생각은 거주공간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장소적, 시간적 의미를 통찰하지 못하는 소치(所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공간'에 대한 의미를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거주함"(Dwelling)의 사유에 기대어 밝혀내고, 거주공간의 실현을 '창의적 토착화'¹⁾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할 것이다. 또한 거주공간의 의미와 실현의 구체적인 사례로 멕시코의 건축가 바라간(Luis Barragan, 1902-1988)의 주거디자인을 분석하였다. 바라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밀한 거주공간은 이론적 논지에 대한 구체성을 보여줄 것이다.

* 정회원, 영산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전임강사

1) 토착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선행연구인 "지역건축의 '토착화' 이론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7호, 2000.7, pp.55-62)를 참조할 것.

2. '거주함'의 사유와 '거주공간'에 대한 재해석

모든 존재자는 자기의 세계를 드러내는 범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 안에 철저히 내재(內在)함을 근거로 존재자는 자기의 세계를 개시(開示)할 수 있다. 존재자의 이러한 존재 특성을 주요하게 사유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를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라고 명명(命名)하였다.²⁾ 이 말은 전통적인 존재 이해방식을 전복(顛覆)하는 것으로, 존재자가 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으며 세계가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자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모든 존재자는 자기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속해 있음으로써 나름의 고유한 세계를 표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내-존재”는 ‘세계 속에서 실존(거주)하는 존재’의 특유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근거할 때, 인간의 ‘거주함’이란 고유한 존재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실존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일련의 행위(행태)라고 이해하는 ‘거주함’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와는 다른 것이다.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거주함”(Dwelling)은 ‘방에 놓여 있는 책상’과 같이 일정한 영역 내에 정치(定置)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의 생활 세계와 주변 여건이 맞물려 있으면서 거기에서 고유한 삶의 패턴을 펼치는 존재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책상은 그저 방이라는 영역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거주하는 인간은 자기의 주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매우 친숙한 방식으로 존재하려고 애쓴다. 이 때, 세계에 대한 친숙함은 물리적인 ‘거리(距離)’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둠’이라고 하는 관심의 정도에 관계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가 매일 쓰고 있는 안경보다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림 한 점에 더욱 친숙함을 느끼고, 삶에의 자극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거주함은 자기의 삶(세계)의 투영이며, 또한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주함이 가져오기 쉬운 문제는 자기의 주위 세계에 지나치게 친숙해짐으로 인해 자기가 관심을 보내고 있는 대상(세계)들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의 모습은 도리어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자기의 세계’를 고정화하여 보다 손쉽게 ‘친숙함’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거주함은 세계 내에 들어가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인 동시에, 그 세계가 끊임없이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내-존재”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존재가 관계 맺고 있는 술한 변화 요인들과 결부되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거주함은 고유한 자기 세계에 돌아가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그때마다의 고유함으로 변화하는 자기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며, 열어 나간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주함은 ‘귀속(歸屬)’과 ‘개시(開示)’의 이중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주함으로 인해 내부의 본질에 동화되어 주체화되며 정체성을 얻게 되며, 또한 거주함으로 인해 잠재된 내부의 본질은 발현하여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거주함의 의미가 내포된 공간인 ‘거주공간’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거주공간’이 ‘주거(housing)’와 별반 다르지 않게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上記)한 “거주함”의 사유를 바탕으로 할 때, ‘거주공간’은 주거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생활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겠다. 가시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물리적인 영역으로서의 공간(Raum)을 넘어 존재자의 존재 세계가 펼쳐지는 모든 구체적인 장소(Platz)가 곧 ‘거주공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의 언설은 이렇다. “주위세계는 미리 주어진 하나의 공간 속에서 자신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독특한 세계성은 분별적으로 헤아리면서 지정된 장소들을 그때마다 전체성으로서 연계적인 관련을 지어 나가는 의미현시성 속에서 연결된다.”³⁾ 풀이 하자면, 고정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이 설정된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세계를 담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정황과 자기 세계의 전체성과의 관련 속에서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고유한 세계를 드러내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장소가 가장 ‘친숙한 장소’이자, 근처의 의미를 띤 “지역”(Gegend)이며, 본 논의에서 정향하는 ‘거주공간의 장소적 의미’이다.

그런데 상기 하이데거의 언설에는 ‘거주공간의 시간적 의미’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세계-내-존재는 과거적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적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자(前者)는 선험(先驗)이요 전승(傳承)이며, 후자(後者)는 욕망이요 기대이다. 존재의 현재성은 과거와 미래의 열거로서 형성되어 있으며, 귀속과 개시의 이중적 관심의 투쟁 가운데 고유성을 보존하고 발현한다. 그래서 본래성으로의 회귀는 귀착에 목적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모든 발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은 초월에 목적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본래성의 생기(生起)를 도모하는 것이다. 단지 귀착이나 초월에만 관심을 가지는 존재의 현재성은 생동하지 못하거나, 자기 근거를 거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로 거주공간은 그때마다 전체성과 연계 속에서 현재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 때에야 비로소 가장 ‘친숙한 순간’으로서의 현재적 거주공간이 된다.

거주공간은 물리적, 수량적 척도를 통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터’이며, 존재의 ‘친숙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존재의 고향인 동시에 개방의 원천이 되는 곳이지, 존재

2) Martin Heidegger,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p.80.

3) 김형효,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 2001, p.104. 원문은 M. Heidegger, Sein und Zeit, p.104.

의 의미가 망각된 그런 균질적 공간이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 거주공간은 '존재의 집'이라 할 수 있으며, 존재론적 사태가 조성되는 '개방성의 열개'라 할 수 있다. 전승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미래적 가능만을 현실에 표현하려 했던,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가 사라지고 대신 계량화된 추상공간으로 점철된 근대건축은 다시 거주의 의미를 회복하여야 한다.⁴⁾

거주공간은 고유한 삶의 양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화하는 동시에 잠재되어 있던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 즉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과 고유한 입지를 형성하는 주변 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귀속성과 개시성을 순환반복적으로 진행하며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속성은 대치되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거주공간의 고유성을 확립해 나간다. 이 같은 대립적 이중성의 역동적 어우러짐이 일어나는 경계에서 거주공간은 창성(創成)하게 된다.⁵⁾

3. '창의적 토착화'의 정의

3.1. 토착화의 의미

거주공간은 지역에서 공유되고 정착된 고유한 형태와 문화가 반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수용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승과 수용, 그리고 차별화에 의해 달성되는 정체성은 각고(刻苦)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명력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듯이 생명력을 담아내는 거주공간은 이러한 이중적 투쟁을 통해서 고유한 형태(Gestalt)가 만들어 진다. 차이의 긴장 속에 투쟁의 과정을 거쳐 고유성을 일구어 가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간단히 '토착화'라 부른다. 경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움(차별성)을 내재적 본질(동일성)에 융합하는 것이 곧 '토착화'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주공간은 토착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토착화는 마치 도구가 몸의 일부와 같이 신체화되는 것과 같다.⁷⁾ 타자를 존재 내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며, 부분적인

텍스트가 전체의 맥락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로 인해 존재의 세계가 재인식되며 새롭게 드러나야 한다. 즉 토착화는 자기 내부로의 안착함과 변화된 신체의 드러냄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 균열이 일어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통합으로서의 토착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고로, 본 논고에서 말하는 토착화는 형태 출현을 위한 투쟁이며, 부분이 전체와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융합의 상태를 함의(含意)한다.

그런데 논자가 말하는 '토착화'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문화적인 관습화를 이루어 가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이런 '과정적 토착화'는 이미 주어진 여건에 몸과 마음을 적응해가는 것이며, 거주와 관련지어 말하자면, 이미 건립된 공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주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주함"이 '귀속'뿐 아니라 '개시'의 이중성을 통해 내재적 세계를 드러내면서 고유성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사유에 근거할 때, 토착화는 과정적 전개가 아니라 건립과 동시에 거주함의 특성이 반영되며 표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논자는 '창의적 토착화'라 부른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이데거의 '지움(건립)'과 '거주함'에 대한 독특한 사유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하이데거는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주택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축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지움 거주함 사유함"(Building Dwelling Thinking)—에서 현대의 거주상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항상 거주 본성에 대해 새로이 탐구하며, 학습하는 사유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충언한다. 특히 그는 지움과 거주함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지움의 본질은 거주함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⁸⁾

이러한 논지의 강연을 끌어가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지움 이후에 비로소 거주함이 가능하다는 상식적인 생각의 전복에서 출발한다. 지움은 거주함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함의 특별한 목적에 선행(先行)하는 하나의 행위로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지움은 이미 그 자체로서 거주하는 것이다"⁹⁾라고 말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용어의 어원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본성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하이데거의 말에 따르면, '지움'(bauen)의 어원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주함으로서의 지움'이며 다른 하나는 '제작함으로서의 지움'이다. 전자의 지움은

4)하이데거가 근대성이 초래한 부정적 상황을 '거주의 위기'라 비판하며, 진정한 거주를 상실한 채 근본적인 불안정성(Umheimlich)에 빠진 인간에게 의미있는 장소, 즉 안정된 거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5)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경계를 정의하기를, "어떤 것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움이 유발되는 지점"이라 하였다. - Martin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lated by Albert Hofstadter, Perennial Classics, 2001, p.152.

6)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이해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주요 대목을 인용하면 "토착화의 과정은 1차적 관계망이라 할 수 있는 계승된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며, 거기에 발생한 새로움 혹은 변화에 대응하여 본래의 구조체계를 지속시키면서 더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시·공간적 현재에 지속적으로 양태를 保持시켜 나간다." - 이승현, "지역건축의 '토착화' 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7호, 2000.7., p.58.

7)예를 들어, 망치라는 도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편하게, 마치 신체의 일부가 연장된 것처럼 사용될 때, 그것은 친숙함 가운데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그 망치가 작업자의 손가락을 내리치거나, 손잡이와 망치의 머리부분이 동강이 나 버릴 때, 망치는 낯선 대상이 된다. 그 낯설음의 경험으로 인해 망치의 쓰임새나 생김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낫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게 될 것이다.

8)Martin Heidegger, 앞의 책, p.159.

9)Martin Heidegger, 앞의 책, p.144.

단순히 생활한다는 의미 보다는 인간이 이 땅 위에 유한한 생명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한편 bauen에는 포용, 보호, 염려, 일꾼, 보살핌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용어가 자발적으로 열매를 익어가는 경작(耕作),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을 제작(製作)하는 구축(構築)이라는 뜻을 가진 '지움'이다.¹⁰⁾

그런데 '거주함으로써의 지움'이라는 본원적 의미는 '제작함으로써 지움'이라는 의미에 가려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언어는 그 대상이 담고 있고 체험된 것에 대한 의미의 명명, 즉 "존재의 집"이라고 볼 때, 이것은 분명 단순한 의미의 축소라기보다는 본원적 의미의 은폐로 인해 근본 특성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물(buildings)의 '지움(building)'이 단지 구축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실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주함의 사건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세계가 어우러져 고유한 장소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지움은 제작의 의미 이전의 존재(거주함)로서의 지움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기술 혹은 기능이라는 고착화된 뜻만 통용되고 있는 '테크닉'(technic)이란 용어 역시 어원인 '테크네'(techne)의 본원적 의미가 가려진 채 일면의 의미만 남아 있는 경우이다. 테크네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현존해 있는 사물 속에서 어떤 것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¹¹⁾을 의미하였다. 간적으로 말해, 테크네는 '표출', 즉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테크네'의 본원적 의미를 수용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제작이나 자연미의 재현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업과 같이 현전(現前)한 대상의 내면세계를 끌어내어 체험토록 만드는 표출의 행위를 의미한다. 기술을 이용해 물리적인 사물을 세우는 것은 테크네를 표상적 차원에서만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근원적 의미를 되살리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테크네의 본원적 의미에 천착해 이해할 때, 지움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유용한 기능을 제작함에 앞서 구체적인 거주의 공간들을 먼저 결합시킴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주공간은 기술의 숙련에 의한 '제작'의 과정을 거쳐 지어지고 거기서 비로소 거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주 의미의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하나의 시짓기와 같은 '창작'의 결과이다.

3.2 '창의적 토착화'의 방식

그렇다면 거주함의 본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달리 말해, 창의적 토착화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가 후기 철학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사역"(四域, fourfold, das Geviert)¹²⁾에 관한 사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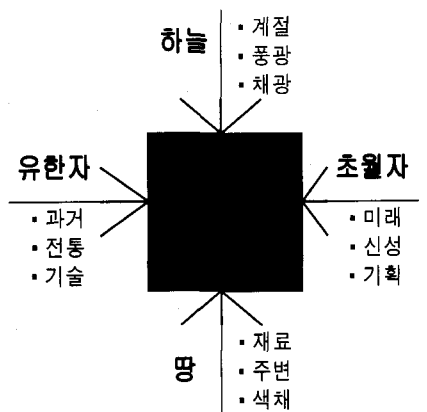
10) Martin Heidegger, 앞의 책, pp.144-146 참조.

11) Martin Heidegger, 앞의 책, p.57.

12) 용어에 대해서도 국내 번역가들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여 설명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귀속과 개시의 이중적 투쟁관계를 통해 안착함과 드러냄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범주로서 '네 개의 세계구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존범주를 하이데거는 "대지, 하늘, 신(초월자), 인간(유한자)"이라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 네 가지의 근원적 실존범주는 존재가 거주하는 물리적 환경과 실존적 터전을 아우르는 관계요소들이다. 존재는 이 사역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 거기서 각 요소들과 관계를 맺고 고유한 존재 세계를 드러내면서 거주한다. 그래서 사역은 존재자가 속한 일종의 '세계의 짜임새'라고 말할 수 있다.¹³⁾

세계의 짜임새로서의 사역은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상호 얽힘 가운데 하나의 통일된 외양을 만들어 가는 유동적 구조이다.¹⁴⁾ 존재자의 터전인 사역의 각 요소들은 변화하는 긴장 속에 놓여있으며, 그



<그림 1> 거주공간의 사역

긴장의 관계 속에서 존재자는 끊임없이 변화된 새로움으로 드러난다. 사역의 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로 동일시되지 않으며,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긴장을 유발한다. 즉 모든 존재는 이 사역의 요소들을 불러들이며, 사역 요소들 간의 역동적 어우러짐으로 인해 자기의 고유한 터에 거주한다. 이러한 '짜임새(texture)간의 맥락(context) 작용'을 통해 창의적 토착화가 가

다. 예를 들면, '사중물', '사방 세계', '사방', '사역' 등이 있으나 궁극적인 뜻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논의기에 그에 걸맞게 '사역'이라는 번역을 채택한다.

13)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할 것. - 이승헌, "노베르그-슐츠(C. Norberg-Schulz)의 '장소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 12권 3호, 2003. 9., pp.153-154

14)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지와 하늘, 신적인 것과 죽을 자는 자신으로부터 서로 통일적으로 통일하는 네 축의 한결에서 공속한다. 넷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다른 본성에 반영된다. 이러한 반영은 모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반영은 넷 각자를 트이게 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한결같은 통일에서 서로서로 고유하게 실체화하게 한다. 이렇게 고유하게 실체화하면서 넷 각각은 서로 다른 것에 찬조한다. 고유하게 실체화하는 반영은 넷 각각을 그 고유한 것으로 풀어 놓지만, 이 자유로운 것을 이들의 본성에 어울리게 상대로 향함이라는 한 결로 매어놓는다. 자유로운 곳으로 매어놓는 반영은 넷 각각을 통일을 위해 포개는 발판에서 넷 각각을 서로 신뢰하는 놀이다. 넷 중 누구도 자기의 독특함을 고집하여 경화되지 않는다. 넷 각각은 그들의 통일안에서 오히려 어떤 고유한 것으로 상응하여 고유하게 된다." - Martin Heidegger, "The Thing", 앞의 책, p.177 번역은 송재우의 것임.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적 위험", 예술과 현상학, 한국현상학회편, 철학과 현실사, 2001, pp.105-106.)

능하다. 다시 말해, 사물로부터 의미가 발현되는 것은 '사역의 역동적 어우러짐'을 통해 의미화 작용이 일어난 결과이다.

사역의 역동적 어우러짐은 땅을 들추어내는 것이며, 하늘의 운행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신성에 의한 초월을 기다리는 것이며, 유한자의 본성을 전수(개시)하는 것이다. 이들이 상호 관계성을 맺으며 하나의 통일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곧 거주함이며, 거주상실의 회복이다. 다리의 구축(지움)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다리의 구축은 양쪽 독을 드러내면서 광대한 땅의 경관을 불러들인다. 다리를 스쳐지나가는 물살의 변화로 하늘의 기상을 감지하게 한다. 다리는 유한자의 영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소통시킨다. 더 나아가 유한자의 한계를 절감하며 신성함 앞에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이렇게 하나의 구축되어진 다리는 땅과 하늘, 유한자, 신성을 모아들인다. 다리에서 사역의 모아들이미 가능한 이유는 다리라는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앞서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세계 안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즉 사물로서의 다리는 사역의 세계가 어우러져 고유한 장소성을 드러내게끔 하는 공간을 구축(지움)한 것이다.

사역의 모아들이미에 의한 친숙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터존재를 사역의 터 내에 보존하면서 동시에, 다른 관계들과의 교응(交應)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모아들이미는 패쇄적이며 고착적인 안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열림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아들이미는 단지 잊고 있던 오래된(전승의) 세계를 다시 불러와 인식케 하는 일시적 친숙함이 아니라, 창조적 개방성이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 열림'으로서의 친숙함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역의 모음'으로 정체(停滯)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역동적 움직임'에 의해 샘솟듯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이미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 열림으로서의 친숙화가 곧 '창의적 토착화'이다.

그런데 사역의 요소가 역동적 어우러짐을 일으키는 창의적 토착화의 방식은 이중적 구조의 친숙화로 설명가능하다. 즉 땅과 하늘의 불러모음은 수직적 축을 이루며 장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소성을 이루고 있는 땅(대지)의 속성을 들추어내며, 하늘(환경)의 속성을 거껴이 불러 모아 귀속과 개시가 동시에 바로 거기에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한자와 신성의 불러모음은 수평적 축을 이루며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의 한계 내에서 과거로부터 전수받은 전통을 잇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미래적 소망에 대한 관심을 초월적 방식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에서만 항상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땅과 하늘의 불러모음은 장소적 친숙화로서 '근접화'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유한자와 신성의 불러모음은 시간적 친숙화로서 '현재화'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근접화'는 지역의 친숙한 범위내로 가까이 다가서려는 의식적 노력과 관심과 투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세계-내-존재의 자기 표현이고 현상화이지, 이 물건을 저 물건 곁에 두는 그런 병립의 사물적 현상이 아니다.¹⁵⁾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으로 유사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일체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각적 결합에 머물지 말고, 거주공간의 토대가 되는 지형, 토질, 재료, 주변 여건 등과 거주공간의 환경을 이루는 기후, 빛, 바람, 자연 환경 등의 특성에 밀착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 속성을 꿰뚫어 보고 직관적으로 불러내어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재된 모습을 빛나게 해야 한다.

'현재화'는 현재완료적 과거와 가능성의 미래가 만나는 순간¹⁶⁾이다. 과거의 사실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에 되살리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현재완료적인 양식으로 현상화시키는 결단의 순간이 지속될 때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완료적 사실성과 미래적 가능성이라는 이중성 사이를 지속적으로 왕복하면서 현재에 거주하는 존재가 특성화(친숙화)되어 가는 것이다¹⁷⁾. 전승의 문화와 기술을 통해 삶의 방식을 재해석해내며, 유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을 통해 더욱 풍성한 현재의 삶이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 전개와 결과 거주공간의 '창의적 토착화'를 위한 방법으로 <표 1>과 같은 논리적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겠다. 이는 기존의 사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작품의 분석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 장에서는 루이스 바라간의 주택 사례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4. 루이스 바라간의 주택사례 분석

4.1. 바라간의 '거주함'에 대한 사색

바라간은 인간이 거주하는 주택이 단순한 피난처나 기능성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 안에 사는 사람과 관계에서 주택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건축'(emotional architecture), 즉 오랜 정서를 느끼며, 자연을 통해 사색하며, 땅과 하늘에 친숙히 다가서는 건축이 되도록 하였다. 혼미하고 복잡한 도시 속에서 거주자의 감각을 친근히 느낄 수 있는 주택은 자연과 인간 자신, 그리고 신성함까지도 돌아보게 하며, 공동체적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15) 김형효, 앞의 책, p.106.

16) 하이데거는 '지금'에 대비하여 현재를 '순간'으로 해석한다. 같은 맥락에서 톰바흐는 순간을 근원적 시간, 영원, '서 있는 지금'이라고 정의했으며, 이 영원한 현재가 미래와 과거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신학에서 '이미' 도래한 영원의 현재완료성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원의 미래성이 신앙의 현재성임을 말하는 것과도 통한다.

17) 김형효, 앞의 책, p.369 참조.

<표 1> 창의적 토착화의 방법(분석기준)

궁극적 목표	사역과의 관계	토착화 내용	디자인 요소	형태표현 방식
근접화 : 장소적 친숙화 고려	거주공간의 수직적 축을 이루는 땅과 하늘의 장소적 의미를 재해석	대지의 속성을 일깨움	지형, 토질, 재료, 색채, 역사성, 주변맥락 등	요소들 상호간의 역동적 어우러짐에 의한 고유한 형태의 표출
		환경의 속성에 대응함	기후, 빛, 바람, 계절, 풍광, 채광, 자연환경 등	
현재화 : 시간적 친숙화 고려	거주공간의 수평적 축을 이루는 유한자와 초월자의 시간적 의미를 재해석	전수받은 전통의 재할	전통문화, 양식, 기술, 구법, 정신, 재료 등	
		미래적 기획의 구체화	신성함, 새로움, 변화요인, 인간의 소망 등	

특히 그는 거주함의 의미를 인식하기 위한 장치로 주택의 내부에 정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고유한 기후와 고유한 세계의 한 부분인 정원이 집의 다른 거주자들과 앉고 먹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실’로서 모든 계절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정원에서 하루 중 몇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유도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적 휴식을 소통시키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개인적이며 영구적인 영역의 감각, 또한 전통적인 거주자의 감각을 준다.” 또한 정원을 들 수 없는 도시 주택에는 하늘로 열리는 지중해식 중정을 두었다. 도시 주택 속에 만들어진 중정은 ‘땅 위’와 ‘하늘 아래’의 조건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물리적인 자연만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거주자의 의지가 드러남으로써, 중정은 자연과 일체가 되는 독특한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그는 이 정원이나 중정을 통해서 거주자가 자신의 삶과 자연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며, 또한 그것을 사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변을 인식하며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공간은 곧 가치 있게 되기 마련이며, 거기서 사람은 진정으로 거주하게 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라간의 건축에서 정원이나 중정공간은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고요하고 내밀한 공간에서 거주자는 자기 명상과 자연과의 교감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거주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평온함을 제공할 뿐더러, 신성함까지 느끼게 하는 침묵의 공간이다.

그런데 이 중정공간은 바라간의 독자적인 디자인 요소라기 보다는 시대성, 역사성, 장소성, 타자성과의 역동적 어우러짐에 의한 창의적 토착화의 결과물이었다. 바라간의 건축은 신화와 경이, 기억이 신체화된 것이다. 바라간의 건축은 생활의 과잉에 반대하며, 구축의 부족에 대항하며, 무감각한 외행성에 대항하는 자세와 같은 것이었다. 그는 근대운동의 급진적 관심을 폭로하고,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주거를 위한 기계’란 말 이면의 사상을 비난하였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중정, 정원, 높은벽, 샘, 내밀한 공간들이 가진 우아한 빈곤의 양태들은 멕시코 문화의 생기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며, 지중해식 건축으로부터 배운 것을 흡수하여 멕시코의 기후, 생활양식, 감각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합한 것이다. 지형학적 맥락(geographical context)과 연대학적 맥락(chronological context)을 고려한 토착화를 이룩해

낸 것이다. 이는 곧 앞서 말한 장소축에서의 근접화와 시간축에서의 현재화를 이룩한 것이다.

구분해서 말하자면, 먼저 근접화에 의한 친숙함은 자연환경을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거주공간 내부로 끌어들여 땅의 감각을 체험케 하는 것이다. 그 땅을 거닐며 함께 호흡하게 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처해있는 곳에 대한 인식과 그 터로부터 이어진 구축물의 근원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기후조건에 호흡하고 있는 색채를 사용하고 지역의 경관과 하늘 그 자체를 관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소의 고유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화에 의한 친숙함은 오랜 거주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해석하여 유한자의 정서를 회복케 하는 것이다. 바라간에게 있어 의미 있는 과거는 근대건축운동의 흐름¹⁸⁾과 유년시절 지역에 대한 감성¹⁹⁾과 여행을 통해 얻은 지중해 정신 등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원천을 흡수 통합하여 독창적인 어법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공간 내에서의 깊은 명상은 인간 존재의 내면의 성찰뿐 아니라 신성함에 대한 의식과 존중을 가져오게 한다. 그런 초월적 이미지가 시간의 한계를 넘어 현재의 공간에 어우러져 있다.

하이데거의 사유에 근거하여 기술하자면, 바라간의 건축은 자연정원을 거주공간 내부로 끌어들여 땅이 가진 장소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늘과 자연을 인간 존재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중해의 정신과 멕시코의 오랜 전통을 융합하여 축적된 시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동시에, 자연정원과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비일상적이며 초현실적인 신성함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한다. 곧 바라간 건축의 정원 혹은 중정은 둘러싼 영역감을 통한 땅과 하늘에 대한 친숙함뿐 아니라, 사색과 영적 자기 성찰에 의한 무한자와 유한자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사역의 역동적 어우러짐의 현장인 것이다. 거주공간에서 창의적 토착화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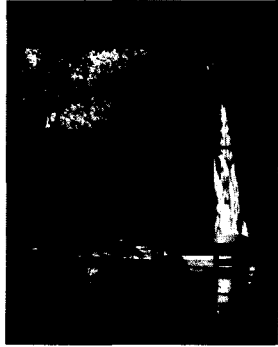
18) 근대건축의 구성적 틀은 수용하되 균질적이며 중성적인 공간을 반대하고 정서적 울림이 발생하는 정신적 차원의 공간을 산출하였다.

19) “나의 유아시절 첫 기억들은 마시미틀과 교외에 있는 우리 가족의 농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집들로 이루어진 산에 있는 마을이었다. 집들은 타일을 붙여 만든 지붕이 있거나 깊은 처마가 있어 내리는 비로부터 집을 보호하였다. 심지어 땅의 색깔도 흥미로웠다. 그 지역의 땅은 붉은 색이었다.” - E.Ambasz, The Architecture of Luis Barragan,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76.9., p.7.

4.2. 작품에의 반영

(1) 바라간 주택(Barragán House, 1947-48)

바라간 주택은 가장 안 쪽의 영역에 자연정원을 두고 있으며, 생활의 모든 공간들은 자연정원을 대면하고 있다. 특히 창작의 영역인 아뜰리에의 한 쪽 벽면은 대형 유리창으로 처리하여 자연정원과 시각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내다보이는 자연정원은 계절과 빛, 바람의 변화 등으로 그때마다의 고유한 땅과 하늘의 특성을 접하게 하며 가까이 다가서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택 내의 정원을 인위적으로 손대기 보다는 그대로 방치하여 인간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일어나게 하며, 그로 인해 신성(神聖)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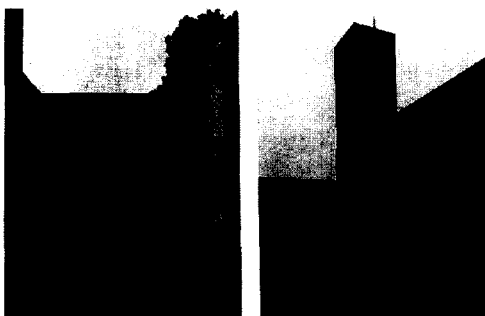


<그림 2> 바라간주택 아뜰리에

내부공간은 정적이고 내향적인 공간들이 병치되어 있으며, 좁은 통로로 각 공간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특유의 강한 바람과 강렬한 태양에 대응한 전통적인 생활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적 사색을 통한 비일상으로의 탈출을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점에 더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벽은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내향하는 공간을 형성시킨다. 이는 공격적인 도시적 성격이 가져오는 압박을 차단하고 침묵을 통해 근원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주택의 옥상에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옥상중정이 있다. 인근 시설에 대한 시각적 차단 효과를 통해 도시의 공격적 속성을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깊이감을 부여하면서 하늘을 담아내고 있다. 이 공간에서도 거주자는 하늘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보게 되며, 에워싸의 벽체는 내면적 사색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자연정원과 내향적 공간, 그리고 하늘로 열린 중정은 인간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사색하게 하며, 하늘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 속에 묻혀져 가고, 결국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자기가 덮고 선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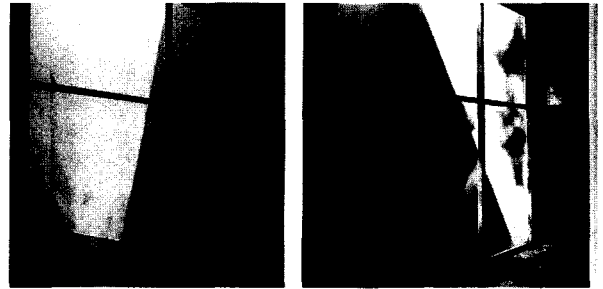


<그림 3> 바라간주택 옥상정원

근접해 들어가며, 자기를 이루고 있는 시간적 특성을 숙고함으로써 본성에 회귀하며 초월에 대한 기획을 일삼게 된다. 이로써 세계-내-존재의 친숙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역의 어우러짐을 통해 '거주함'의 의미를 음미하게 된다.

(2) 갈베스 주택(Gálvez, San Angel, Mexico City, 1955-57)

갈베스 주택의 아뜰리에에는 높이 6.8m의 벽에 둘러싸인 작은 물의 정원에 대형 유리창으로 면해 있다. 시간과 일기에 따라 벽과 물에 의해 빛이 달라진다. 이를 바라보는 거주자는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비일상성을 체험하게 된다. 거주자가 내면 세계로 들어가 사색하도록 의도적으로 꾸며진 공간이다.²⁰⁾ 또한 개별 공간들은 문을 열 때는 각 실들이 상호 연속적이지만, 평상시에는 공간 자체가 폐쇄적 성향이 짙어 거주자는 침묵의 공간에서 고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고요는 단순한 적막이 아니라, 긴장과 투쟁의 과정을 거친 다음 얻을 수 있는 내면적 안식과 통일감과 같은 것이다.²¹⁾



<그림 4> 갈베스주택 아뜰리에

(3) 기라르디 주택(Gilardi House, 1976)

기라르디 주택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정원은 나타나지 않지만 건물의 곳곳에 건축정원을 두고 있다. 집의 가운데 파티오, 가장 깊숙한 곳에 물을 담아 둔 풀, 이층의 핑크색 문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옥상정원, 이층 거실에 면해 있는 테라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내적인 친숙함을 통해 잃어버린 도시의 거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철학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주택은 빛의 유입과 색채의 사용에 있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창의적으로 토착화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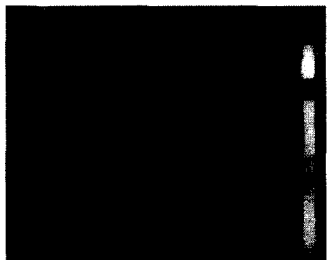
20) 고정석, 바라간 주거작품의 건축정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pp.69-71 참조.

21) 이 주택에 대해 사역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 김광현의 글은 논자의 생각과 일맥하고 있다. “웅결실 측면에 붙어 있는 작은 물의 중정은 일종의 추상적이 공간이지만, 거실 안에는 구체적인 사람의 생활이 있다. 이 중정의 벽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는 하루의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장소다. 때로는 빛이, 때로는 나뭇잎이 그늘을 드리우는 벽 안쪽으로 거주자의 생활이 에워싸여 있다. 벽으로 둘러싸고 공간을 비움으로써 ‘땅을 안전하게 살리고’, 벽을 열고 창문을 두어 ‘하늘을 받아들이며’, 사는 자의 정신적 고양을 위해 ‘무한자를 기다리고’, 자신과 가족이 주어진 땅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인 자신의 본성을 가르치는’ 행위가 이 주택의 작은 중정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 김광현, “건축과 거주”, 이상건축 2004. 04, p.103.

빛은 계속해서 방향과 양이 변함으로써 지각되는 색을 변화시키고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풀에 사용된 대키적 색상들은 우주의 장려한 빛을 나타내면서도 민족의 민예 속의 원시적 느낌마저 풍긴다. 풀의 뒷벽 모서리에 흘러내리는 빛줄기는 벽과 색에 생기가 들게 하며, 물의 일렁임과 어울려 비밀상적 공간을 경쾌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거주자의 사색을 유도하며, 신성함을 인식하게끔 한다.



<그림 5> 기라르디주택의 풀



<그림 6> 기라르디주택의 격자형 벽체

또한 노란색 격자형 벽체에 의해 걸려져 들어오는 빛의 효과는 더욱 강조되며 초현실적인 현상을 체험케 만든다. 식당 모퉁이 부분에 비치는 천창의 빛은 종교적,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기후적 성격에 대한 반영이며, 하늘과 땅에 대한 재인식을 불러오며, 빛에 의한 신성함과 사색을 제공한다.

5. 결론

거주공간의 창의적 토착화는 장소적 근접화와 시간적 현재화에 의한 친숙함이 드러나도록 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중 근접화로서의 친숙함은 땅의 감각을 느끼게 하며, 거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케 하며, 기후조건이나 경관·색채 등에 대응함으로써 표출될 수 있다. 또한 현재화로서의 친숙함은 전통의 재해석, 오랜 정서와 고유한 정신을 체험케 하며, 비밀상성이나 신성함을 통해 현실에 생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다.

바라간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근접화와 현재화의 동시적 발현에 의한 '거주함'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즐겨 사용한 빛, 색, 벽, 중정, 정원의 요소들은 사역의 역동적 어우러짐을 달성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이 종합할 수 있겠다. 주택 작품의 결과물들은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이 개별 항목을 넘어 복합적인 상호관계-그래서 표의 칸 사이를 점선으로 표현하였다-의 결과로서 표출되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바라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도시 속에서 고요하고 내밀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거주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바라간은 도시로부터의 차단, 자연과의 교

감, 생활자의 명상과 안식, 전승적 정서의 표출, 신성하고 침묵의 공간 체험이라는 방법을 주요하게 적용하고 있다.

거주공간은 전통요소의 인용이나 환경요소의 모방에 의해 달성될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표상적 접근으로는 결코 내면적 의미나 멋을 표현할 수 없다. 지역의 고유한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잠재되어 있는 역사와 땅의 깊이를 읽어내어야 창의적인 거주공간이 성취될 수 있다. 은폐되어 있는 진리와 같이 지역의 고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투쟁을 통해 특성을 탈은폐시켜야 한다. 전승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장소의 잠재된 특성이 구체적으로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 토착화를 통해서만이 거주공간은 달성된다.

<표 2> 루이스 바라간의 주택작품에서 보이는 '창의적 토착화'

개방공간(정원, 중정)에 의한 창의적 토착화	대지의 속성	-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땅을 밟음으로써 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비밀상적인 감정을 경험케 함.
	환경의 속성	- 거주공간 내부에서 하늘과 자연을 직접 관망하며, 유한 자로서의 자기명상을 이끌어 냄.
	전통의 재현	- 지중해식 중정에 대한 재해석. - 기후에 대응한 전통적인 배치방식의 재해석.
	미래적 기획	- 들리섬의 영역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평온함, 신성함까지 느끼는 침묵의 공간.
구성요소(벽, 색, 빛, 창, 물) 표현에 의한 창의적 토착화	대지의 속성	- 자연과 빛을 대하게 만든 유리창을 땅과 자연을 주택내부로 연장시킴. - 높은 벽은 복잡한 도시 맥락으로부터 차단 효과이면서 동시에 바람과 태양을 막는 전통의 파티오 성격.
	환경의 속성	- 기후조건에 호응하는 색채. - 정원, 하늘이 보이거나 물에 비친 빛은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함.
	전통의 재현	- 정적이고 내향적인 공간배치는 바람과 태양에 대응한 전통적 생활패턴의 재해석. - 원색은 민속적 이미지와 함께 초월적 이미지를 동시에 풍김.
	미래적 기획	- 내향적인 벽체는 신성함을 느끼게 하며 인간 자신의 현 재성을 사색케 함. - 물에 일렁이는 빛이나 격자형 벽에 걸려져 들어오는 빛은 초현실성을 느끼게 함.

참고문헌

1. 김형호,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재, 2001
2. Martin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lated by Albert Hofstadter, Perennial Classics, 2001
3. Edited by Raul Rispá, BARRAGAN, THAMES & HUDSON, 1996
4. Christian Norberg-Schultz, 거주 개념, 이재훈 역, 태림문화사, 1991
5. 최현렬, 루이스 바라간 단독주택에서 정원에 관한 주요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01
6. 고정성, 바라간 주거작품의 건축정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접수 : 2003. 6. 30>